

# 창작 공간된 근대 건축물...예술이 일상된 철공소

## 문화로 키우는 지역 경제

### 5 서울 문래 예술촌 인천 아트 플랫폼

전국에서 문화예술로 도시의 미래를 찾으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주민과 예술가들의 자발적 참여로 시작된 곳도 있고, 지자체 주도로 진행되는 곳도 있다. 이들 공간의 공통점은 시민들의 생활공간이 곧 예술가들의 작업실과 전시장이 된다는 점이다. 예술가들이 주민들의 삶을 바꾸고, 주민들은 예술가들의 작품 활동 영역을 넓힐 수 있도록 영감을 불어넣으면서 공생하는 것이다.

자발적으로 찾아든 예술가들로 전통과 예술이 버무려지기 시작한 광주 대인예술시장도 그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지속 가능한 '생활+예술'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많다.

이 같은 문제점들을 잘 해결한 곳이 서울 문래예술촌과 인천 아트플랫폼이다. 두 지역 모두 예술가들이 자발적으로 날아든 뒤에 지자체가 힘을 보태면서 활력을 얻기 시작했다. 삶과 예술의 경계를 극복하고 거기에 지원이 더해졌다. 지역에 새로운 스토리가 생기고, 새로운 예술가와 관광객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근대 건축물 13동을 리모델링해 지난 2009년 문을 연 인천 아트플랫폼은 레지던시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문화 활동으로 시민과 예술가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서울 문래예술촌과 예술공장=“쿵쿵쿵, 푹푹푹.”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 들어서자 푹푹한 철공소 망치 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주위로는 ‘태양 파이프’ ‘신성정발’ ‘삼원로 다리 연마’ ‘광명특수금속’ 등 철공소가 즐비했다. 망치 소리를 음악 삼아 골목길을 걷자 진한 쇠 냄새가 풍겼다. 시뻘건 쇠파이프만 보이지는 않았다. 곳곳에 있는 그라피티와 예술 작품들이 잠시 걸음을 멈추게 했다.

문래동은 1960~80년대 기계 소리가 가득했다. 산업화 시절 수많은 철재 상가와 공장들이 모여 철공소 단지가 만들어졌고, 한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호황을 이뤘다.

1990년 무렵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공장들이 이전하고 재개발 정책 등으로 철공소들이 떠나게 되면서 문래동은 급격하게 쇠락하기 시작했다. 자재를 사기 위해 찾아오던 손님들의 발길과 공장 기계 소리가 끊기면서 빈 상가들이 늘었다. 문래동을 떠나는 주민들도 늘었다. 시커먼 벽과 빈 점포, 문래동은 그렇게 활기를 잃었다.

문래동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3년. 새로운 입주민들이 생겨나면서부터다. 홍대나 대학로 등에서 활동하던 젊은 예술가들이 문래동에 둥지를 틀기 시작했다. 이들은 경영난으로 문을 닫은 철재 상가 2~3층에 있는 빈 사무실에 점포를 열고, 예술 활동을 시작했다. 저렴한 월세뿐만 아니라 철공소 지역이라 작업 중에 생기는 소음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예술가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다.

예술가들은 주민과 함께하기 위해 노력했다. 껌빛 가득했던 공간에 그라피티를 그리고, 다 기울어져 가던 슈퍼와 카페에 예술을 입히기 시작했다. 독불장군 같은 예술 활동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고감하고 소통하기 위한 노력들이었다. 그렇게 문래동은 예술과 삶이 혼재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지자체가 힘을 실었다. 서울시는 지난 2010년 문래동에 ‘문래예술공장’을 만들었다. 문래동에서 활동하는 유망한 예술가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된 문래예술공장은 다목적 발표장, 공연장, 전시실, 공동 작업실, 녹음실 등을 갖추고 있다. 또 이를 기반으로 해마다 시민과 예술가들이 함께 꾸미는 ‘물레아트페스티벌’을 열기 시작했다. 문래동은 그렇게 예술가들이 주민이 되고, 주민이 예술가가 되는 공간으로 변화되면서 활기를 되찾았다.

◇새로운 예술 거점 인천 아트플랫폼=차이나타운과 맥아더 장군 동상이 있는 자유공원 등으로 유명한 인천 중구 해안동 일대는 우리나라 최초로 근대적 도시 계획을 도입한 곳이다. 1983년 개항 이후 건립된 건축문화재 및 1930~40년대에 지어진 건축물이 잘 보존돼 있다.

### 1960~80년대 산업화 거점 ‘문래예술촌’

### 한국 첫 도시계획 도입지 ‘아트 플랫폼’

### 방치 건물에 예술가 입주시켜 활동 지원

### 전시·공연·시민교육...관광벨트 연계도

하지만 이 지역도 산업환경의 변화로 1980년대 이후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했다. 낡은 창고 등에는 쓰레기가 나뉘면서 슬럼화가 가속화되기 시작했다.

인천시는 이 지역이 지닌 문화적 경관을 복구하기 위해 지난 2000년 해안동 일대 근대 건물과 산업유산 건물들을 문화공간으로 지정하고, 본격적으로 아트팩토리 사업을 추진했다. 1980년대 후반 예술가들이 ‘피카소 작업실’을 만들어 활동했던 것이 계기가 됐다.

아트팩토리 사업의 결과물인 인천 아트플랫폼은 지난 2009년 10월 개관했다. 등록문화재인 우선주식회사(일본 무역회사) 등 근대건축물과 인천항 하역물품 보관 창고, 1930~40년대 지어진 삼우인쇄소, 양문교회 등 건물 13동을 하나로 묶어 리모델링한 뒤 예술창작공간으로 꾸몄다. 과거와의 단절 대신 역사와의 소통을 택한 것이 인상적인 부분이다.

인천 아트플랫폼은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시작예술을 비롯한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와 연구자들에게 창작과 연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예술 창작의 인큐베이팅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 아카이브, 국제교류,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전시, 공연, 다원문화, 시민참여형 문화행사 등 다양한 기획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과 만나고 있다.

최근 인천시는 아트플랫폼을 중심으로 관광벨트를 구상하고 있다. 차이나타운, 자유공원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통해 중국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글·사진=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 이승미 인천 아트플랫폼 관장

## “아트플랫폼은 15년 고민의 산물 지자체-예술가-시민 소통 우선”

“인천 아트플랫폼은 개관 15년 전부터 시민단체, 예술인, 지자체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거쳐 만들어졌습니



다.” 인천 아트플랫폼 이승미(여·52) 관장은 문화예술로 도시를 재생시키기 위해서는 명확한 목적의식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장은 “많은 지자체가 오래된 건물을 문화 공간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상당 부분 놓치고 있다”며 “왜 그 공간을 바꿔야하고, 또 그 공간이 시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을 주고 지지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앞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역사적인 공간에 녹아든 인천 아트플랫폼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를 지자체, 시민단체, 예술가의 소통으로 꼽았다. 또 예술 공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연구주의를 철저히 경계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아트플랫폼 레지던시 경쟁률은 30~40:1 정도로, 이중 지역 작가들에게 활동되는 공간은 30% 내외다.

이 관장은 “모든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하는 점은 시민”이라며 “예술의 집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보다 새로운 것을 보여주기 위해 작가들과 끊임없이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김경인기자 kki@



예술가들이 작품을 입힌 서울 문래동 구멍가게.

11월 9일 (당일)

해인사 단풍열차  
대장경 축제

| 날 짜  | 시 간   | 일 정                                                              |
|------|-------|------------------------------------------------------------------|
| 11/9 | 06:30 | 광주역(06:30분)/극락강역(06:40분)/장성역(07:04분)<br>정읍역(07:25분)/익산역(07:51분)  |
|      | 12:30 | 해인사 관광(단풍구경)후 대장경 세계문화축제 관람                                      |
|      | 17:30 | 해인사 출발                                                           |
|      | 23:50 | 익산역(22:40분)/정읍역(23:08분)/장성역(23:28분)/<br>극락강역(23:40분)/광주역(23:50분) |

1인당 개인경비

|       |         |    |         |
|-------|---------|----|---------|
| 성인/경로 | 55,000원 | 소아 | 42,000원 |
|-------|---------|----|---------|

최초로 공개되는 보물  
제222호 마애불입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차표/항공권/승선권  
국제선 할인항공권 판매

(주)대원여행사  
062)526-7000

www.daewontour.com

광주광역시 서구 동성동 대원빌딩1층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 각 역에서도 접수 받고 있습니다.

후원

KORAIL

광주본부

11월15일  
11월22일 (무박2일)

참대열차로 떠나는  
부산 기차여행

| 날 짜            | 시 간   | 일 정                                                                                        |
|----------------|-------|--------------------------------------------------------------------------------------------|
| 11/15<br>11/22 | 11:50 | 광주역 집결 후 탑승                                                                                |
|                | 12:30 | 광주역(12:30분)출발/극락강역(00:39분)출발/광주승정역(00:49분)출발<br>서광주역(01:16분)출발/호천역(01:22분)출발/화순역(01:39분)출발 |
|                | 05:30 | 통도사 / 용궁사 / 해운대 누리마루 / 자갈치시장 관광                                                            |
|                | 17:20 | 부산역 출발                                                                                     |
|                | 22:59 | 화순역(21:48분)/호천역(22:06분)/서광주역(22:12분)/광주승정역(22:27분)<br>극락강역(22:50분)/광주역(22:59분)             |

1인당 개인경비

|     |         |     |         |
|-----|---------|-----|---------|
| 참대칸 | 86,000원 | 일반칸 | 66,000원 |
|-----|---------|-----|---------|